

# 영유아 정책 자문위원회 <제1차 정기회의> 보고

2019.6.11.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
 작성자: 영유아정책담당 양신영 선임연구원

## 1 행사 개요

- 일 시: 2019.5.24.(금) 10:00~13:00
- 장 소: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
- 주요 일정

09:45~		등 록	
10:00~	5분	인 사 말	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인수 공동대표
10:05	10분	위촉식 및 사진촬영	임미령 위원장 외 17인
10:15~	20분	자문위원 소개 및 인사	
10:35~	20분	자문위 배경 설명 및 제안	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윤지희 공동대표
10:55~	65분	제1차 본회의	자유 토론
12:00~	10분	제2차 회의 일시 결정	하반기 중 11월 예정 (연2회)
12:10~	50분	식 사	

### ○ 자문위원 명단 (18인, 가나다순)

<b>김아름</b>	육아정책연구소 육아친화정책팀 부연구위원	<b>윤경애</b>	자연유이발트솔레 원장
<b>김영명</b>	아이들이행복한세상 고문	<b>이영애</b>	숙명여대 심리치료대학원 놀이치료학과 교수
<b>김영희</b>	경기도교육청 장학사	<b>임미령</b>	수도관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 영유아사교육포럼 대표
<b>김은주</b>	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	<b>임아영</b>	경향신문 기자
<b>박다혜</b>	법무법인 하정 변호사	<b>정수경</b>	양재2동 어린이집 원장, 어린이집연합회 회장
<b>박지현</b>	직업전문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전 서울시 보육정책위원	<b>정혜순</b>	공립단설상도유치원 원장 전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
<b>박창현</b>	육아정책연구소 유보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	<b>제충만</b>	이동관다용도소 활동가 전 세아브드칼드론 관공호팀 과장
<b>신성욱</b>	과학저널리스트	<b>최현주</b>	한국여성재단 미래포럼 과장 영유아사교육포럼 부대표
<b>염지숙</b>	건국대 유아교육과 교수	<b>홍민정</b>	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

당일 참석자: 김영명, 김영희, 박다혜, 박창현, 윤경애, 임미령, 임아영, 제충만, 최현주, 홍민정, 송인수, 윤지희, 양신영 (13인)

## 2 자문위원회 구성 배경 및 논의 제안 (첨부자료2 참고)

**■ 정책 및 제도 개선****1. 영유아 인권법 논의 확장 제안**

- 임미령 아동인권법 논의 추가 토론회 진행 제안.
- 박다혜 법제정 설계할 때 디테일한 심리적인 부분들 반영해서 제도를 바꿔야.

**2. 누리과정 개정 관련 의견**

- 임미령 사교육 감소에 있어 누리과정 개정이 좋은 기회.
- 윤경애 누리과정 개편되도 현장에서는 평가의 기준일 뿐. 운영적인 어려움 고려되어야.

**3. 비현실적 보육료 개선 문제 제기**

- 김영명 보육료 동결 문제.
- 김영희 유치원비 인상 상한선 비현실적인 금액 문제.
- 윤경애 현실에 맞지않는 보육비용 개선되어야.

**4. 영유아 정책 관련 기타 제언**

- 임미령 총선, 대선에 반영될 정책 변화 요구 미리 준비
- 김영명 교육과정 큰 틀에서 문제 정확히 직시해야. 전반적인 조사해서 근거가지고 사격세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특정해서 사업잡아 가야.
- 임아영 무상보육의 허상 깨야. 영유아 시기의 사교육은 보육과 뗄 수 없음. 부모들에게 더 꽂히는 키워드는 제시해야.
- 박창현 사립유치원 공공성 문제 끝까지 완수하고 전반적인 체질 개선해서 부모와 유아가 다 같이 참여해서 만드는 교육과정, 그런 기관으로 만들어가는 방향에 사격세가 어떤 식의 보완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.

**■ 시민 의식 개선 및 캠페인****5. 부모 교육 중요성**

- 김영희 학부모 교육 중요. 전국 전문직 연수 때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파견 요청.
- 임아영 부모 교육 의무화시켜야.
- 최현주 육아 지원 열심히하는 기업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제안. 영유아 부모들이 격려와 응원의 대상되길.
- 제충만 정치인만 설득해서는 법이 만들어지는게 의미 없음. 사회적으로 제일 결부되어 있는 사람들,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좀더 초점을 맞춘 캠페인 방식, 언어, 접근방식 적극적으로 수용해야.
- 김영명 별로 놀아보지 못한, 스펙쌓기에 올인한 90년대 세대 부모들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

지 깊이 고민해야.

## **4** 도출된 과제에 따른 후속 추진 사업 내용 3

---

### **1. 영유아 부모 간담회 개최**

- 영유아 키우고 있는 부모 목소리를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는 점 대부분의 자문위원 의견.
- 당사자 목소리 듣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언어와 방식으로 캠페인해야할 필요성 제기.
- 그 목소리가 영유아 인권법 논의와 연계되어야 함.
- 유치원·어린이집 방학전 7월 중순 이전 개최 목표로 추진하기로 함.

### **2. 영유아인권법 추가 논의**

- 영유아 부모 간담회와 연계
- 필요시 간담회,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의 논의를 적극 시작해보기로 함.
- 현재 5월 한달간 영유아인권법 캠페인으로 1천명 정도가 서명함.
- 서명받은 것으로 의원실 접촉 진행해보기로 함.

### **3. 교육청 단위 부모교육 강좌 적극 제안**

- 현재 ‘안심해요 육아!’ 소책자 배포 홍보로 경기도교육청 여러 지역에서 좋은부모아카데미 진행됨.
- 각 교육청의 경우 하반기에도 한번더 강좌 개설 혹은 각 유치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보내기로 함.
- 유치원·어린이집 원장 연수 등 전문직 연수의 경우 유아교육진흥원 연수담당 장학사에게 공문보내 협력 요청하기로 함.
- 육종이나 작은 단위 부모교육 강좌도 적극 추진하기로 함.